

셰익스피어 비극에 대한 북한의 인식*

도 해 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폐쇄적 국가체제를 유지하며 서양문화의 유입을 극도로 꺼리는 북한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살펴본다. 셰익스피어는 시대를 막론하고 북한에서 출간된 문헌들에서 서양문학 작가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북한의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1960년대 중반 주체사상의 정립은 북한 문학이론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셰익스피어에 대한 높은 평가는 변함이 없다. 주로 봉건적 왕이나 귀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사람이 운명의 주인이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북한의 지도이념은 서로 양립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나 서구 일반의 문학계처럼 북한에서도 셰익스피어 비극은 인기가 높다. 또한 북한의 비평은 사상성 혹은 주제 중심이고 작품의 구조, 언어, 극적 기법과 같은 요소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셰익스피어 비극 비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셰익스피어 비평은 서구의 전통적 성격비평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극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해석한다. 비극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햄릿, 오셀로, 로미오, 줄리엣, 로렌스 신부님을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신을 체현한, 순수하고 정의롭고 고귀한 인물이라 칭찬하고, 그들의 행동도 대부분 옹호하며, 그들의 결함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유령이나 마녀 같은 추상적 존재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7115)

상징성과 의미, 악인의 복잡한 심리, 젠더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제어: 북한, 주체사상, 셰익스피어, 비극, 성격비평

I. 들어가는 말

비극은 특정 시기에만 번성했지만 비극만큼 여러 분야의 대가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장르는 드물 것이다. 비극은 문학의 기원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비극은 문학예술가의 분석대상에서 나아가 니체, 헤겔 등에 의해 철학적 연구 주제로 확대되었다. 서구 문학의 전통에서 비극은 가장 위대한 장르로 간주되었다. 비극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과 불확실하고 혼돈스런 삶의 의미를 직면코자 하는 보편적이고도 심오한 욕망을 표현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강석주 367). 고대 그리스 이후 다시 비극문학의 전성기를 이끈 셰익스피어의 비극, 특히 4대 비극은 그의 희극, 사극, 로맨스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큰 감동을 주며,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성취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글턴(Terry Eagleton)이 말한바 있듯 좌파에게 비극은 신, 신화, 피의 예식, 형이상학적 죄의식과 무자비한 운명이 지배하는 ‘재미없는’ 문학일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인 돌리모어(Jonathan Dollimore)는 비극은 항상 결정론, 체념, 불가피성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듯 보이며, 바커(Francis Barker)는 비극은 잃어버린 풍요함이라는 형태로 왕의 존재를 기린다면 불만스럽게 말한바 있다(Eagleton iv).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는 왕, 장군, 귀족 같은 극소수 특권계급이 주인공인 셰익스피어 비극을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은 인간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체사상을 국가이

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 운명론적 결정론, 형이상학 등을 거부한다. 또한 문학에 술에서도 철저히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이념이나 문예정책을 생각하면 결론을 예단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북한에서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인데,¹⁾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4대 비극, 특히 “세계문학사상 최고봉이라 불리고 단순히 문학작품의 의미를 넘어선 상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권오숙 54) 『햄릿』(*Hamlet*)은 북한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아주 인기 있는 작품이다.²⁾ 또한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셰익스피어 작품들 중 비극 장르의 번역서들이 가장 활발하고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편견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기존에 영문학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다룬 논문은 두 편이 있지만³⁾ 셰익스피어 한 작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한 편뿐이다. 2001년에 발표된 최경희·홍유미의 「북한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라는 선구적인 논문이 그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논문은 북한에서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되는지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북한의 셰익스피어 번역에 대해 본격 분석한다. 논문의 저자들은 남북한 번역이 크게 다르지 않고 북한의 셰익스피어 번역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⁴⁾ 하지만 최경희·홍유미의 연구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폭넓은 범주를 다루다보니 셰익스피어 극의 장르별 비평이나 『햄릿』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 평가, 북한의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셰익스피어 비평 경향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고, 일부 오류도 발견되는 등의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은 비극 장르에 집중하여 비극작품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북한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을 보는 관점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여러 시기에 걸쳐 북한에서 출간된 외국문학 관련 저서, 문학사전, 셰익스피어 작품 번역서의 서문, 문예잡지의 평론 등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비극의 개념을 알아본 후, 북한의 정치 및 대외관계 변화기조에 따라 크게 세 시기, 즉

195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셰익스피어 비극 비평을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북한자료의 제한성 탓도 있지만, 북한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문예정책의 변화로 셰익스피어 비평 경향이 유사한 자료들을 분류하여 모은 결과이다.⁵⁾ 1950년대에 나온 자료들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극찬에 가깝고, 1970년대의 자료는 셰익스피어 비평의 폭이 좁아진 동시에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이루어지며, 동구권 몰락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대처로 북한이 개방정책을 재개한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료들은 양적 풍부함과 동시에 셰익스피어 비평의 폭이 다시 넓어지고 또한 우리나라 및 서구 일반의 비평과 공통점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룬 북한자료들은 립학수의 『셰익스피어와 휴머니즘』(1954), 『서구라파 문학개관』(1958), 『문학예술사전』(1972), 『외국문학사』(초판, 1975), 『외국문학사』(2판, 1980), 『문학예술사전』(상·중·하)(1988-1993), 황영길의 『셰익스피어 희곡선』(1)에 대하여』(1991)와 『셰익스피어 희곡선』(2)에 대하여』(1995), 리기도의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1996), 『문학대사전』(5권, 1999-2000) 등이다.⁶⁾ 본 논문에서 이들 자료들을 동일한 분량으로 논하지는 않을 것인데, 저서의 경우 내용이 풍부한 만큼 자세히 다루겠지만 문학사전의 경우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 문헌들이 북한의 셰익스피어 비평을 대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검열에 의해 정권 및 당의 문예정책에 완전히 부합되는 표준자료들만 출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평경향의 일반화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II. 북한에서의 비극의 개념

북한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시작은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이라 볼 수 있지만 주체사상이 공식화된 것은 1967년 ‘조선

노동당 제 4기 15차 전원회의'이다. 주체사상이 유일지도이념으로 채택되고 체계화하면서 1970년대 초반 문학예술에서도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이 생산되어 공식적인 문예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조금씩의 변화발전을 겪으면서 1992년에 북한 문예이론의 총화인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출간된다. 김정일은 주체적 문예관은 간단히 말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5)이라고 말하며, 구체적 문예창작방법으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100) 주체사실주의를 제시한다.

사실 북한에서 문예창작방법론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실주의는 일반 사회주의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미학적 관점이 계급에 기초하여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계급성’과 ‘인민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 당 독재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당성’이 강조된다(김용범 207). 북한 정권 수립 후 초기단계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문예이론의 핵심이었다가 국가이념이 주체사상으로 바뀌면서 문예이론 역시 주체사실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에 대한 북한의 평가도 북한 정권수립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했다가, 주체사상이 확고히 정립된 이후에는 주체사실주의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셰익스피어의 구체적 비극작품에 대한 비평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서 인식하는 비극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문학에서 ‘비극’은 주인공의 파국적 결말로 끝나는 심각한 행동들의 문학적, 특히 극적 재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Abrams 321). 비극은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하나의 문화적 형태를 이루었으며, 헬레니즘과 기독교 속에서 활발했다(Williams 19). 비극이론의 출발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 비극은 서술이 아닌 무대재현의 방식을 취하며, 시적 언어를 매개로 한 진지한 행동들의 모방이면서 그 자체로 완결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연민과 두려움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이루어낸다(95). 르네상스시대 대표적 작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한 특성은 브래들리

(A. C. Bradley)가 자신의 고전적 저서에서 잘 설명한 바 있는데, 셰익스피어 비극은 “높은 신분의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특수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5)로, 주인공의 고통과 불행은 비극적 감정의 주요 원천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은 반드시 선한 인물일 필요는 없고, 선하든 악하든 항상 몰락의 원인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있다.

북한에서도 비극은 주인공의 죽음이나 희생으로 끝나는 극 장르를 의미한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들 중 가장 방대한 분량과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대사전』(2권)은 비극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의 행사로 공연된 합창서정시였다고 소개하며, 유럽문학사에서 비극의 발전단계를 서구의 일반적인 분류처럼 고대 그리스 시기, 문예부흥기, 라신(Jean Racine)과 꼬르네이유(Pierre Corneille) 등의 고전주의 시기, 그리고 근대비극 시기,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비극의 개념에 대해 “비극적 형상을 통해 인간과 그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슬픔과 비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극작품”(560)이라고 규정한다. 1991년에 출간된 『문학예술사전』(중)은 “희극이나 정극과 구별되는 비극의 중요한 형상적 특징은 그 주인공이 투쟁에서 죽거나 실패한다는데 있고,” “비극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주인공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니만큼 희극이나 정극의 갈등에 비할 바 없이 심각하고 첨예하며 격렬”한데, 이런 “미학적 속성으로 하여 비극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최대한의 긴장성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28-29).

이렇게 비극에 대한 기본적 정의는 서구문학계 일반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비극적 주인공에 대한 설명에는 간극이 있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주인공은 반드시 선한 인물일 필요는 없고 맥베스(Macbeth)처럼 악한 인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문예관에서 비극의 주인공은 반드시 선량하고 진보적 이상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1972년에 출간된 『문학예술사전』은 비극작품의 주인공은 당대 사회의 필연적인 요구를 체현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인물이라고 말한다(461-62). 비슷한 관점으로, 1991년 『문학예술사전』(중)은 비극의 주인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인공이 투쟁에서 죽거나 실패한다고 하여도 그의 사회적 이상이 반동적이

고 따라서 그의 죽음이 사람들의 슬픔과 동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그는 비극적 주인공으로 될 수 없다. 적어도 비극적 주인공이 되려면 그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진보적인 사회적 이상을 체현하고 있어야 하며 아름답고 선량한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극적 주인공은 자신의 제약성과 사회력사적 조건의 불가피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보적인 사회적 이상과 이롭다운 지향을 꽃피우지 못하고 희생되는 인간이다. 바로 여기에 비극적 주인공의 운명이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고 그들의 동정을 받게 되는 근거가 있다. (128-29)

문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사상 교양과 문화정서 교양의 좋은 수단이 된다는 김정일의 언급(20)처럼, 위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에 대한 규정은 선량하면서 진보적인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관객이나 독자를 각성시키고 사회적 이상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선동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전적 관점이기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작품이 “철저히 악한 인물이 행복하다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구성은 도덕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라도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연민은 부당하게 불행을 겪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100)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저한” 악인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악인과 선한 사람의 중간에 있는 인물도 언급하기는 하지만, 비극의 극적 효과를 위한 주인공의 요건이 북한에서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주인공이 비극을 겪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서구 문학계의 관점과 차이가 크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이후 서구의 전통적 비극 비평에서는 흔히 햄릿의 우유부단함, 리어왕(King Lear)의 성급함과 판단력 결여, 오셀로(Othello)의 질투, 맥베스의 권력욕 등 셰익스피어 주인공들에서 성격상 결함을 읽어냈는데, 『서구라과 문학개관』은 이를 비판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주위 환경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가졌고,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비극작품들에서 보여주려 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였으며, 그래서 셰익스피어 비극이 한 역사적 시기의 인류의 운명을 그렇게 심오하게 체현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86). 또한 『문학대사전』(2권)은 비극 발생의 원인에 있어 운명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운명론으로 접근하면 “사람의 운명이 신에 의하여 결정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대 사회의 질서를 반대하거나 그에 항거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므로 그러한 충돌은 비극을 낳는다”(560)는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비극은 기본적으로 계급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착취사회의 산물로 간주되며, 비극의 주인공은 진보적인 것을 위해 투쟁하지만 계급 사회, 착취사회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희생되는 인물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비극적인 것이 발생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김정일은 “지난날 셰익스피어식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비극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근원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주인공의 파멸로써 끝나는 전통적인 비극은 오늘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리기도 162 재인용). 다만 사회주의 하에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적 모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적대계급의 책동에 의하여 생겨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비극의 발생조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계급착취사회의 산물인 서구의 고전비극을 여전히 계속 읽는 이유에 대해 문학예술사전이나 외국문학사 관련 저서들은 착취사회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고취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문학예술을 개인의 미학적 즐거움보다 집단적 의식고양을 위한 도구, 즉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극 분야에서 비극이 꽃을 피웠던 두 시기인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영국에서 연극은 상당부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와일즈(David Wiles)가 지적하듯 그리스 비극작품의 독특한 특징은 대중이 모든 공공 행사들에서 단순한 관람객이 기보다는 참여자였다는, 그리스의 정치적 실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3). 모든 사회계층이 하나의 극장에서 함께 연극을 관람했던 르네상스 영국에서도 연극은 대중의 선동을 위해 종종 이용되었고, 그린블랏(Stephen Greenblatt)의 연구가 보여주듯 르

네상스 영국에서 정치의 연극성과 연극의 정치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Ⅲ. 북한에서의 셰익스피어 비극 비평 양상

1. 1950년대

북한에서 1950년대는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부응, 당의 문예정책을 방해하는 부르주아 및 종파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청산, 작가 및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구현 등을 과업으로 삼았다. 전반적으로 전후 혼란기의 북한 문학계는 중앙정부의 통제시스템이 약해서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고, 1930년대 프로문학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조류가 계속 이어진 측면이 있다. 외국문학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북한 비평을 보면 1970년대의 자료들보다 분석의 범위와 대상이 훨씬 폭넓고 다양하며 작품 해석에 있어서 비교적 덜 엄격한 사상적 잣대를 적용했다. 셰익스피어 비평의 경우 분단 이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소개된 셰익스피어를 처음 접하고 환호한 세대들이 주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립학수⁷⁾였다.

1954년에 나온 립학수의 「셰익스피어와 휴머니즘」은 셰익스피어의 탄생 39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문학』에 발표한 긴 평론으로, 분단 후 북한의 첫 셰익스피어 비평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수립 초창기에 나온 이 글에서 셰익스피어를 향한 립학수의 태도는 극찬에 가깝다.⁸⁾ 립학수는 “오늘 그는 미영 제국주의자의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실로 자유와 평화와 민주를 념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셰익스피어”(132)라고 주장한다.⁹⁾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위대한 휴머니스트”(124)로서의 셰익스피어를 설명한다.

그는 온갖 종류의 갈등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인간의 본성, 인간 형상의 원인

과 결과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훈하거나 어떤 결과에로 독자나 관중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인간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나 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활을 더욱 깊게 이해하도록, 그리하여 자신이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그래서 그는 다종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하였다. 37편의 그의 희곡에 등장하는 방대한 수의 인물들, 봉건령주와 승려, 귀족과 인민, 상인과 장군, 병사와 녀인들은 실로 모든 형의 인간상이다. (124)

보통 셰익스피어의 탁월함의 하나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들기도 한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 사건 등을 묘사하는데 있어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관객과 독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특정 교훈이나 결과로 관중을 이끌지 않는다는 립학수의 언급은 셰익스피어의 수용 및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서구의 일반적 평가와 닮은 측면이 있다.

이 평론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당대 사회현실의 반영이자 고발이라는 것이다. 립학수의 설명에 의하면, 『오셀로』의 이아고(Iago)나 『리어왕』(King Lear)의 에드먼드(Edmond)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자본주의 원시축적기 약탈자의 전형적 인물들이요,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은 당시 봉건 직전에 처한 봉건 귀족들이 할거하여 서로 진흙투성이 혼전을 계속하던 모습을 질책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리어왕의 비극적 종말은 리어 자신이 무도한 폭군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줄리엣은 “봉건적 개념의 포위 속에서 자유와 남녀평등을 부르짖으며” 항거했다고 해석하며, 『햄릿』에서는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인민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126). 그러나 『햄릿』의 유혈 낭자한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덴마크의 왕위를 노르웨이의 왕자가 차지하는 결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읽어내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존슨(Samuel Johnson)이 셰익스피어는 도덕적 목적 없이 글을 쓴 것 같고 선과 악을 정당하게 배치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데서 알 수 있듯(497),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정의와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후 북한에서 외국문학의 수용은 일제 강점기 남북한 공동의 유산도 있었지만 상당부분 구소련을 통해서였다. 1958년에 출간된 『서구라과 문학개관』의 짧은 서문은 이 책이 소련에서 발행된 서구라과 문학서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에 출간된 외국문학 관련 저서들이 외국문학사에 아시아 및 제 3세계 국가들의 문학을 포함시키는 반면 『서구라과 문학개관』은 서양문학사만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서보다 서구문학 전반에 대해 폭넓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 책에서 언급되는 모든 작가들 중 세익스피어를 가장 많은 분량에서 다룬다. 이 저서는 세익스피어를 사실주의의 위대한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평하며, 표현의 풍부함에서 알 수 있는 엄청난 단어 수의 사용, 시적인 표현과 산문적인 표현의 자유로운 결합, 민중적 언어의 광범위한 도입, 정확한 직유와 복잡한 은유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형용어의 우월성 등을 세익스피어의 특징으로 든다(94).

『서구라과 문학개관』은 립학수와 유사하게 세익스피어 비극 창작의 바탕을 당대 사회현실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세익스피어 비극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햄릿』과 『오셀로』 중심이다. 『햄릿』은 문학에서의 모나리자 혹은 스프링크스라고 불릴 만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의문문 형식으로 제기하는 작품으로(김미애 4), 『햄릿』 비평사에서 주된 논점은 복수지연의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햄릿의 내적인 요인, 즉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려 하였지만, 북한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다. 햄릿은 용감하고 솔직하며 사랑에서나 증오에서나 심장의 뜨거움을 가진 순수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악이 만연한 비참한 고국 현실과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과업 사이에 끼어 절망하고 우울해졌을 뿐이지 이 자체가 비극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구라과 문학개관』은 오페리아(Ophelia)에 대해 언급한 드문 자료 중 하나로, 그녀가 따뜻한 감정을 가진 순결한 인물이지만 단순하고 순수하기만해서 궁정내의 투쟁을 이해하지 못했고 적대적 두 편 사이에 끼여 가슴만 졸이다가 희생되었다고 해석한다(90). 서구 일반의 비평처럼 오페리아의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면모를 지적한 것이다.

『서구라과 문학개관』은 『오셀로』의 경우 고귀한 인간이 완강한 계급적 전통과 선

입견에 항거하지만 결국 파괴되는 비참한 전말이 그려지고 있으며, 이 작품은 질투의 비극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증오와 높은 인도주의가 구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리어왕』은 자기도취에 빠진 거만한 전제적 폭군이 에드먼드 같은 간악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맥베스』에서 주인공 맥베스의 경우, 자신도 알지 못하게 깃들어 있던 야심의 맹아가 “제 4의 요괴”인 부인의 재촉에 의해 자라나 흉악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전투에서의 영웅성이 범죄에서의 잔인성으로 변해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해석한다(92). 이 저서는 맥베스 부인이 주인공 맥베스의 비극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언급하지만 몽유병으로 대변되는 그녀의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한편 립학수의 논평, 『서구라과 문학개관』, 그리고 이후의 북한 자료들은 일관되게 셰익스피어 비극시기에 대해 외부의 사회정치적 현상을 주로 언급하고 가족사 같은 작가 개인의 상황이나 당대 유행 등은 거의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익스피어 가족사를 보면 1596년에 유일한 아들이 11살의 나이에 죽고 뒤이어 1601년에는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비극창작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셰익스피어가 비극을 집중적으로 집필한 1599년에서 1608년에 이르는 시기 영국 무대에서 가장 유행하던 장르가 비극이었다. 1590년대에 키드(Thomas Kyd)의 『스페인 비극』(*The Spanish Tragedy*)이 상연되어 큰 성공을 거둔 후 많은 작가들이 복수비극 및 비극 창작에 합류하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다작 작가가 특정 시기에 특정 장르를 집중적으로 집필할 때는 당대 그 장르의 유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2. 1970년대

북한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는 문학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당대 북한의 정치상황 때문이다. 1967년 5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5.25교시’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

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고 이후 종파투쟁 및 반수정주의 투쟁을 벌였다. 김정일이 정식 후계자로 선포된 1974년까지 지속된 5.25교시는 북한 지식인들의 교체, 김일성 우상숭배의 물결고조, 도서정리작업 등을 통한 사회통제강화, 사상교육 검토의 강화,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부자세습체제를 통한 정권강화의 효과를 가져왔다(안성호 43). 5.25교시는 북한판 문화대혁명 혹은 분서갱유 사건으로 불릴 만큼 북한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책들이 폐기처분되었는데, 외국문학관련 도서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외국문학 및 외국문화에 대한 통제와 봉쇄도 이어졌다.

1975년에 출간된 『외국문학사』의 서문에서도 수정주의의 해악을 언급하며 반수정주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주장할 만큼 이 시기에는 엄격한 사상투쟁으로 인해 외국문학 비평이 질적으로 더 제한적이고 폭이 좁아졌으며, 1970년대에 나온 『문학예술사전』과 『외국문학사』(초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전의 극찬에 가까운 평가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셰익스피어의 사상적, 계급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북한에서 1970년대는 주체사상이 유일지도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이 시도된 시기였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비평에서도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비평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72년에 출간된 『문학예술사전』은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이전의 평가와 유사하게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인물 형상화를 통해 서구 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하지만, 셰익스피어의 한계도 언급한다. “신흥부르주아지의 리해 관계를 반영한 셰익스피어의 창작은 자비심과 인간에 대한 초계급적 사랑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이른바 교육받은 상층부에 의하여 사회를 개조하려 하였으며 자본주의 발전의 첫 단계에 들어선 문예부흥기 영국의 현실을 리상화한 본질적인 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593)는 것이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계급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이후 비평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창작에 대해서는 17세기 영국에서 봉건왕권과 귀족계급의 일시적 동맹관계가 파괴된 후 왕권과 귀족계급의 반동성이 강화되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에 의해 빚어지는 사회적 모순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사회적 변동을 반영하는 비극작품을 썼다고 설명한다(592). 셰익스피어의 비극작품으로는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가 언급되는데, 각 작품들이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되지는 않는다. 『문학예술사전』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코리올레이너스』 같은 로마비극들에서 셰익스피어는 당대 영국의 사회적 모순과 그 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정신 도덕적 생활을 반영하면서 인도주의, 정의, 자비심 등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지향은 반드시 부정의와 악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였다고 평한다.

『외국문학사』 초판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 비인간적인 봉건적 편견에 의한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사랑의 파멸을 보여주고, 『햄릿』은 새 세대이자 긍정적 원리를 대변하는 햄릿이 악의 원리를 대변하는 낡은 봉건왕 클로디우스(Claudius)에 의해 파멸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결말에 대한 관점은 앞선 비평과 유사해서, 긍정적 원리가 부정적 원리에 의해 파멸되지만 파멸 속에서 언제나 내적인 도덕적 승리가 동반되고 있다고 해석한다(128). 『외국문학사』 초판본에서 상세히 논하는 비극작품은 『햄릿』뿐이다. 이 저서는 주로 작품의 주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계에 대한 지적은 이전과 유사하다. 북한의 다른 저서들의 비평과 『외국문학사』 초판본의 차이는 햄릿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다.

햄릿트는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의 구현자이다. 그의 성격에는 선의 가지가지의 표상인 관대성, 연민의 감정, 정의감, 용감성 등이 부여되어 있다. 이것은 햄릿트의 형상에 작가의 인문주의적 이상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는 햄릿트의 성격을 자기의 인문주의적 사상으로 일관시키지 않았다. 이 형상에는 또한 주저, 회의, 번민, 명상, 절망 등 부정적 특질이 착잡하게 엉켜있다. 작품 전체 5막 중에서 4막이 이러한 주저와 번민의 장면으로 되어 있다. 클로디우스가 아버지의 살해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복수를 단행하지 못하고 우수부단 속에서 헤맨다. (129)

북한에서 출간된 저서들이 보여주는 비평 경향이 서구의 성격비평에 대한 비판과

햄릿의 행동에 대한 ‘일방적’ 옹호라면, 『외국문학사』 초판본은 북한의 비평으로는 드물게 햄릿의 우유부단함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햄릿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5년 후 1980년에 출간된 『외국문학사』 2판과도 차이가 있다.

『외국문학사』 2판은 북한에서 반수정주의 투쟁이 끝나고 일인독제 및 부자세습체제가 확립된 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1975년 초판본에 비해 시각이 아주 조금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한 2판은 초판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셰익스피어를 소개하며, 비극작품으로 『햄릿』뿐만 아니라 『오셀로』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초판과 비교하면 2판은 주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술적 성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다. 『외국문학사』 2판에 따르면, 『햄릿』은 등장인물 성격들이 개성화, 일반화되어 있으며, “언어가 비교적 형상적으로 잘 개성화되어”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작품의 예술적 한계로는 “극작품으로서 행동이 적고 대화에 지나치게 치우쳤으며” “유령의 등장과 같은 중세적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든다(124). 햄릿의 복수지연이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는 『서구라과 문학개관』처럼 시대적 상황의 문제이지 햄릿 개인의 성격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햄릿』의 주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나 셰익스피어의 한계에 대한 설명은 이전의 비평과 유사하다.

북한의 『오셀로』 분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서구 일반의 해석과 달리 오셀로라는 인물을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외국문학사』 2판은 오셀로와 데스데모나(Desdemona)가 당대 사회악에 오염되지 않은 고결한 사람에 대한 인문주의적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라고 평하며, 작품 『오셀로』는 “인종과 피부색 같은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놓고 그의 사람됨을 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당시 시대로서는 진보적인 사상을 내놓고”(128) “온갖 사회악이 가득한 봉건사회에는 선과 정의, 고결한 사람들과 그들의 지향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126)고 설명한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살해한 것도 단순한 질투심이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따라 정의와 진실을 모독하는 인간들에 대한 징벌과 복수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물론 오셀로는 5막 2장에서 데스데모나를 죽이기 전에 “그녀는 죽어야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남자를 배신할 것이니”(she must die, else she'll betray more men, 5.2.6), “아, 정의의 여신마저 설득당해 칼을 꺾을 법한 향기로운 숨결이로다”(O balmy breath, that dost almost persuade justice to break her sword!, 5.2.16-17)라는 대사에서 자신을 죄를 처벌하는 정의의 집행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외형과 실재를 구분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아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오셀로의 성격적 결함도 외부의 문제만큼이나 크다. 또한 리비스(F. R. Leavis)가 말하듯 이아고의 빠른 성공은 이아고의 악마적 지략뿐 아니라 오셀로의 반응할 준비(264), 즉 오셀로 내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의심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면들을 외면한 채 북한의 비평은 서구의 성격비평과 차별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오셀로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그의 성격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의 비평은 오셀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며 죽음을 각오하고 데스데모나의 순결을 밝히는 에밀리아(Emilia)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아고에 대해서는, “말기 봉건사회의 온갖 사회악을 집중적으로 체현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고 “당시 영국에서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주아적 관계의 장성을 반영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악의 현상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127). 작품의 한계로는, 『햄릿』의 경우처럼 계급성 부족과 사회악을 없애기 위한 전망의 부재를 언급한다. 『외국문학사』 2판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와 『리어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주인공이 악에 대립되는 완전히 선한 인물이 아니며, 주인공에게서 진보적인 면을 읽어내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평에서는 악당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힘든데, 다양한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 체제하 셰익스피어 비평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단편적 분석대로라면 역사적으로 많은 관객과 독자들이 잔인한 악당 이아고에게 끌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3.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 및 부자세습체제가 확립되어 정권이 안정화되자 1982년 11월에 김정일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를 통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모든 인민이 문화예술의 향유자 및 창조자가 될 것을 주창함으로써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리고 1984년에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을 채택하고, 1990년대 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에 응했다. 개방적 분위기에 맞추어 1986년 8월부터 새로운 세계문학전집이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외국문학에 대한 저서들도 좀 더 활발하게 출간되었다.

황영길의 『『섹스피어희곡선』(1)에 대하여』(1991)는 이러한 개방적 조류에 힘입어 출간된 셰익스피어 번역서의 서문으로,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는 이전 비평들의 극찬과 『외국문학사』의 약간 강한 어조의 비판 사이,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계급성 인식의 부족과 사회악을 근절할 전망 부재라는 셰익스피어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개성 넘치면서도 생동감 있는 인물형상화, 현실에 대한 사실적 반영, 긴장감 넘치는 극 구성 등과 같은 문학적 성취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개별 비극작품에 대한 평을 살펴보면, 황영길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예술적 측면에서 앞선 시기의 작품들에 비하여 많은 전진을 보인 작품”으로, “사랑에 고민하는 열정적인 주인공들의 감정 체험세계를 서정적으로 파고들고 깊이 있는 대사를 통해 성격의 생동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6). 그리고 “사랑에 대한 봉건적, 종교적 억압을 반대하고 진실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예찬”하며 “그것을 가로막는 봉건적 질곡을 폭로 비판한 작품”이라 설명한다(5). 일반적으로 이 작품의 비극을 보는 시각은 두 주인공이 태생적으로 불운하게 “별의 횡방을 받아”(star-cross'd, Prologue 6) 비극을 맞이한다는 운명비극의 관점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성격적 결함이나 신부님의 과오 탓으

로 돌리는 성격비극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평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성격적 결합이나 우연, 운명 같은 요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며, 주로 순수한 청춘남녀가 당대 사회 현실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로렌스 신부(Friar Laurence)에 대한 평가가 흥미로운데, 황영길은 “예수교 교리를 선전해야할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두 주인공의 자유로운 연애를 도와주는” 등 “인문주의사상이 널리 퍼졌던 당시 영국의 시대상을 생동하게 구현한” “깊은 감명을 주는 인상 깊은” 인물이라고 평한다(6). 로렌스 신부의 부정적 기여는 무시하고 긍정적 면모만을 본 것이다.

『햄릿』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유사한데, 황영길은 이 작품이 “자기 시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정신의 높이와 심오한 극적 형상, 성격창조의 다면성과 생동성”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돋보인다고 평가하며(8), 주인공 햄릿은 “왕자라는 계급적 울타리를 벗어나 문예부흥기 인문주의자들의 성격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8)이라고 본다. 『외국문학사』와 유사하게, 황영길은 『햄릿』에서 아버지의 유령이 나오는 것은 중세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셀로』에 대한 기본적 논평도 이전과 유사하지만, “봉건적 혼인법을 어기고 재산과 신분상 차이를 초월하여 흑인남자를 사랑할 용단을 내리는 순결한 백인여성”(9)이라는 데스테모나에 대한 언급과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든 것, 특색 있고 시종일관 긴장감을 주는 강한 극 구성”(10)을 가진다는 설명이 눈에 띈다. 이전 『오셀로』 비평이 데스테모나가 보여주는 능동성에 주목하지 못했고 또한 주제 중심으로 접근한 반면 황영길은 좀 더 깊이 있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북한의 비평에서 가장 관심을 적게 보이는 작품이다. 황영길은 맥베스를 끝없는 권세욕과 탐욕 때문에 파멸당하고 마는 야심가이자 출세주의자의 전형으로 보고,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을 악한으로 그리면서도 자기의 범죄행위를 두고 변민하는 인물로 그린 점이 독특하다고 말한다(12). 『맥베스』와 『리어왕』의 공통적 한계로는 왕권에 대항하려고 하는 봉건귀족들을 국가적 재난의 근원으로서 단죄하면서 봉건적 할거주의를 압도하고 국가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

일한 가능성을 절대주의 왕권이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민족국가의 이념에서 찾는 점을 들며, 또한 『햄릿』에 대한 비판처럼 『맥베스』가 “중세적 잔재, 신비주의의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평한다(13). 유령의 등장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비판은 큰 틀에서 사실주의만을 올바른 문학예술창작법이라고 보는 북한의 문예관의 한계이다. 문학이 현실을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려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령이나 요정 같은 비현실적, 환상적인 요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들이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극적 상징성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존재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성찰에 있어 셰익스피어 비극의 위대성을 가장 잘 표출한 작품(박정만 72)으로 평가받는 『리어왕』의 경우, 황영길은 이 작품이 옛 브리튼에 실재했던 리어왕 전설에 기초하고 있지만 리어왕의 두 큰딸과 에드먼드의 형상을 통해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봉건통치자들의 죄행을 폭로한다고 해석한다(11). 주인공 리어왕의 경우, 왕위에서 물러나기 전에는 전제폭군의 모습이지만,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태풍이 휘몰아치는 황야를 방황하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전제적인 봉건군주 하에서 불행한 운명을 겪는 가난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생활처지에 동정을 표시하는 3막의 소위 ‘각성’ 장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나는 죄를 범했다기보다 오히려 당한 사람이다”(I am a man more sinned against than sinning, 3.2.57-58)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 리어왕이 진정한 각성과 연민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혈벗은 불쌍한 가난뱅이들아”(Poor naked wretches, 3.4.29)로 시작하는 대사에서 보여주는 타인에 대한 최초의 연민 표시는 리어의 큰 심리적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황영길의 서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리어왕』의 극적 구성과 전개에 대한 평가가 서구의 일반적 평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황영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리어왕』은 작가의 4대 비극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크고 비극성 또한 강한 작품이다. 작품은 사건 무대가 넓고 주인공의 정신적 체험과 자연환경을 유기적

으로 결합시키는 특징을 잘 보여주며, 리어왕과 그의 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줄거리의 주선과 글로스터와 그의 아들들을 둘러싼 부선을 평행적으로 설정하고 그 두 선이 서로 얽히면서 사건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비극적 효과성을 높여주고 있다. (12)

블룸(Harold Bloom)이 『리어왕』은 반복해서 읽어야하며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가장(travesties)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오수진 271 재인용) 전통적으로 많은 작가들과 비평가들은 『리어왕』의 ‘규모’와 깊이에 주목해왔는데, 황영길의 위 논평은 북한의 비평에서 처음으로 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작품의 극적 규모, 주인공의 심리와 외부 자연현상의 유비, 이중 플롯을 사용한 극적 구성효과 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 중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진일보한 ‘현대적인’ 비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겠지만, 북한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논의가 작품 구조적 측면이나 언어에 대한 분석이 일체 배제되고 있다는 최경희·홍유미의 주장(49)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비평에서 주제나 사상에 대한 언급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문학에서 예술성을 무시하고 사상성만 강조하는 것은 좌경적인 편향이며, 사상성을 거세하고 예술성만 내세우는 것은 우경적인 편향”(35)이기에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36)라고 할 만큼, 문학비평에서 작품의 구조나 구성, 언어, 극적 기법과 같은 요소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셰익스피어희곡선』(2)에 대하여 (1995)는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평한 북한의 유일한 자료이다. 북한의 비평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만큼 누락된 연구 자료가 없다보니 황영길의 비평은 단편적이고 깊지 못한 단점을 피할 수 없다. 황영길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셰익스피어가 역사적인 사실들과 인물들의 활동자료의 취사선택 및 예술적 재현에서 역사주의적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굴절시켜 셰익스피어 당대 영국의 현실, 즉 영국 통치자들의 알력과 권력다툼, 위선과 비겁함, 향락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관

점에서 작품은 형식적으로는 애정 윤리극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내용을 파고들면 심각한 사회역사적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작품의 한계로는 계급성의 부족, 주인공들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의 성격을 피상적으로 그린 것, 일부 내용을 당대의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게 현대화한 것 등을 언급한다. 이는 황영길의 평가에서 계급성 부분을 제외하면 서구 일반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비평에서도 종종 지적되는 바로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출전(source)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너무 광범위한 시간적 배경, 사건, 인물을 담고 있어 “다분히 서사적 특징을 보여 준다”(박우수 31).

황영길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논평에서 “두 주인공의 사랑과 정열을 통해 인간의 보다 건전하고 뜨겁고 사심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작가의 인문주의적 리상”(11)도 보여준다는 해석은 흥미롭다. 셰익스피어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사랑과 정열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작가의 인문주의 이상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문학작품 속 노골적인 육체적 사랑 묘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와 혐오감을 드러내지만¹⁰⁾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를 배격하고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와 사랑을 옹호하며,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나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측면도 잃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 나온 리기도의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에서 셰익스피어의 진보성과 문학적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은 이전 비평들 중 황영길과 가장 유사하다. 저서의 “고전비극과 혁명적 비극”이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에서 리기도는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때로는 “맑스주의 문예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셰익스피어 비극의 특성을 주제사상적 경향성, 갈등의 기초와 그 제한성, 비극을 낳는 원인, 극 구조와 인물의 대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리기도의 분석에서 비극 발생의 원인이나 셰익스피어의 제한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비평과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극 구조에 대한 설명은 두드러진다.

문학작품에서 극조직이 잘되자면 사건과 내용이 시작부터 극이 나올 수 있는
 게다가 명백하여야 하며 기본 사건과 내용을 엮어나가는 때 세부가 극적으로 되

고 극이 심화될 수 있는 극 발전의 요소로 되어야 하며 극이 점차 심화되어 폭발 되고 드디어 계기가 해명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극조직의 일반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극문학, 특히 비극 『햄릿』만 보더라도 . . . 시작부터 심각한 극으로 출발하여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 모순을 피할 길 없는 충돌에 로 발전되며 마지막 대결 장면에서 작품의 전반에 얽혀진 극이 폭발되며 드디어 쓰러린 비극으로 끝난다. 셰익스피어 극문학의 대사는 시화되고 격언화되었지만 어색한 데가 없고 작품의 예술적 질을 높여주고 있다. 문학작품의 대사는 생활 속에서 풍겨 나오면서도 철학적이여야 한다.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대사들은 작품의 내용에 맞는 철학적인 대사들이다. (157-58)

리기도는 김정일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은 극조직과 성격형상, 시화된 대사를 비롯하여 참고할 것이 많은 작품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157) 위와 같이 셰익스피어 극의 특성을 논했다. 일반적 편견으로 보면 북한의 비평은 사상교양과 선동을 위해 작품의 주제와 사상적 측면만을 다루고 강조할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¹¹⁾ 다른 한편으로,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의 내용, 사건, 주제에 대해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북한만의 현상이 아니다. 실제 문학작품의 주제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형식, 언어, 기법을 논하는 것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다.

리기도는 셰익스피어 비극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셀로』를 언급한다. 이 저서의 설명에 따르면, 『오셀로』는 두 주인공을 통해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문주의적 이상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비극적 죽음에 빠뜨리는 당시의 사회악을 비판하고 있으며, 『햄릿』은 인문주의를 체현한 진보적 인간이 사회악을 없애기 위한 싸움에 홀로 나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통치자들의 부패성과 악덕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리기도는 황영길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렌스 신부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인공을 적극 도와주는 로렌스 신부의 모습을 통해 반봉건적 및 반금욕주의적 사상이 강조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로렌스 신부는 “절제해서 사랑하라”(love moderately, 2.5.14)고 말하는 등 중도와 절제를 반복해서 충고하기 때문에 반금욕주

의적이라는 설명은 한계가 있다.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나온 『문학대사전』은 외국의 작가나 작품, 비평용어 등을 원어병기 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사전이니만큼 앞선 황영길이나 리기도처럼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할 수는 없고, 셰익스피어 및 그의 비극작품에 대한 기본적 설명과 한계에 대한 지적은 이전 비평들과 유사하다. 작품소개에서는 줄거리 소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는 비극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이다. 『문학대사전』(4권)의 『햄릿』 항목은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은 그의 4대 비극 가운데서도 가장 잘된 작품”(452)이라는 김정일의 말을 인용하고, 문학사전으로는 드물게 주제적 측면 외에 작품의 극적 구성과 언어의 탁월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논한 리기도의 비평을 요약한 것이다.

『문학대사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왕』, 『오셀로』 항목은 문학사전으로는 비교적 긴 분량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분석내용은 이전 자료들과 거의 동일하다. 『맥베스』 항목에서 주제나 작품의 한계에 대한 논평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마크베스와 마크베스 부인과 같은 뚜렷한 개성적 성격을 창조하고 그들의 성격 변화 과정과 내면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그려냈으며 재치 있는 극작술과 뜻이 깊은 시적 언어형상을 보여준 것으로 하여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2권 220)는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저서에서 『맥베스』에 대한 비평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있더라도 아주 단편적인데, 특히 문학기법적 측면이나 맥베스 부인의 개성적 면모에 대한 언급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문학대사전』 이후 북한에서는 2008년에 출간된 『광명백과사전』, 2012년에 나온 김경식의 「문예부흥기 인문주의 문학의 일반적 특징」 등에서 셰익스피어 비평이 부분적으로나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석내용에 있어 이전의 자료들과 차이가 없다. 김영희의 연구가 보여주듯, 북한에서는 한 연구자가 특정 주제에 집중하기 보다 영문학 내부의 다양한 시대와 작가는 물론 다른 외국문학까지 두루 섭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4), 셰익스피어 비평에 있어서도 새로운 주제의 심층 연구보다는

이전의 비평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높은 평가와 그의 비극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까지 지속적이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북한의 셰익스피어 비극 비평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시대 이후 부상한 서구의 성격비평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극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인물 개인의 문제는 거의 외면하고 사회적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극 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햄릿』, 『오셀로』, 『로미오와 줄리엣』 중심이고, 다른 비극작품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또한 등장인물 중에서 악한 성향을 띤 인물의 경우 다면성을 읽어내지 못하며 비극작품의 여성인물이나 젠더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편이다. 사실 북한에서는 문학이 정치이념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평의 대상 및 폭이 제한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북한의 비평에서 대중교양과 선전선동을 위해 작품의 주제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라는 우리의 일반적 편견과 달리 작품의 예술성, 즉 형식, 기법, 언어, 구조 등의 극작술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서구의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및 서구 문학계처럼 북한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다른 장르보다 인기 있다. 분단 후 북한에서 처음 시도된 셰익스피어 번역은 물론이고 이후 셰익스피어 번역 작품집이 출간될 때마다 항상 비극작품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확실히 특정 정치사상적 배경을 떠나 ‘보편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요소가 있는 듯 보인다. 우리는 서구비평에 익숙해져 있고 서구비평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국가 통치이데올로기에 따라 외국 문화에 대한 ‘주체적’ 수용을 강조하는 북한에서의 셰익스피어 비평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비평 경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학에 있어 하나의 완벽하고도 올바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 ‘해석들’이 존재할 뿐이다.

Notes

- 1) 필자가 확인한 북한 교과서들 중 고등중학교 4학년 문학교과서, 고등중학교 5학년 영어교과서에 계속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실려 왔다. 또한 북한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진 월간 『천리마』는 시사, 역사, 지리, 과학, 문학, 체육, 일반상식, 요리나 건강 같은 생활정보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중종합교양지인데, 이 대중잡지에서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언급들은 셰익스피어가 북한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천리마』에 실린 기사로는 러시아의 뛰어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셰익스피어에 비유하며 셰익스피어의 위대성도 동시에 소개하는 「(체육일화) 아마추어휘거계로 돌아온 <셱스피어>」(2008년 12월호) 외에, 「세계명연 영국작가 셰익스피어 윌리엄」(1993년 1월호), 「(세계유모아) 살아있는 셱스피어」(2011년 10월호) 등이 있다.
- 2) 북한 전공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북한 이탈주민들의 진술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져 2011년에 발표된 통일부 통일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햄릿』을 비롯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정규 교과과정에 실려 있어 모든 청소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외국 문학작품이다(“북한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외국 문학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3) 2001년에 발표된 김영희의 「북한 영문학 서설」은 북한에서 외국문학 수용의 역사적 변화과정, 북한에서의 영문학 교육 현황, 외국문학 출판 및 번역 현황, 외국문학 연구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필자의 좋고 「북한에서 ‘근대’ 영문학을 보는 시각」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영문학사의 주요 흐름, 문예사조, 주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북한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분석한 논문이다.
- 4) 최경희·홍유미는 논문에서 북한의 셰익스피어 번역을 중심으로 논하면서도 운문 번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문을 무시하고 모두 산문 형태로 번역하다가 1987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이덕수가 운문 번역을 시도해서 최종철이 본격화한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초기부터 바로 운문 번역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62년에 출간된 『로미오와 줄리엣』(김해균 역)은 물론이고 1963년에 출간된 『셱스피어 희곡선』과 1991년에 출간된 『셱스피어 희곡선』(1)(2) 역시 셰익스피어 원문과 일치시켜 운문과 산문을 구분하여 번역했다.
- 5) 김영희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외국문학작품의 번역동향도 유사한 세 시기로 나누어 변화를 보인다. 1950년대 및 1960년 초·중엽에는 세계문학선집의 형태로 번역출간이 활발하다가, 1967년 반수정주의투쟁 열풍으로 ‘도서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외국도서 및 문화에 대한 봉쇄정책이 펼쳐지면서 1968년-78년에 발간된 번역 신간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1984년 ‘합영법’의 제정으로 점진적 대외개방정책이 펼쳐지면서 1980년대 후반이후 다시 번역서들이 다수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계속 현격한 양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12-13).

- 6) 작품명, 등장인물 이름 등은 직접 인용의 경우에만 북한식 표기법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내 셰익스피어 학계의 표준방식을 따르되,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위해 직접인용의 경우에도 북한식이 아닌 우리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 7) 전남 순천 출신의 림학수(1911-1982)는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교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를 발표했고, 한국전쟁 후 월북해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의국어대학 등에서 가르치고 외국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작업을 활발히 했다. 그의 『일리아드』는 상당히 뛰어난 번역으로 평가받으며, 영미문학 번역서로는 『바이런 시선』, 『근대영국시선』, 『차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뚝비와 아들』, 『허영의 시장』, 『윌트 휘트만 시선』 등이 있다.
- 8) 림학수는 비슷한 칭찬 기초의 셰익스피어 비평문을 1963년에도 펴냈는데, 그의 「셰익스피어의 예술」은 세계문학선집의 일환으로 1963년에 출간된 『셰익스피어 희곡선』의 서문이다. 이 글에서 림학수는 “셰익스피어는 실로 위대한 작가이다. 그는 예술성에 있어서,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도덕관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찬연히 빛나는 작가이다.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변함없이 인류 역사상 최고봉의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빛 날 것이다”(16)라고 말한 바 있다. 1963년의 「셰익스피어의 예술」은 1954년의 「셰익스피어와 휴매니즘」과 유사하기에 본 논문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자 한다.
- 9) 아주 흥미롭게도, 북한이 전후 건국 초기에 셰익스피어를 민중의 편에 선 민주주의적 작가로 해석하고 전유하는 방식은 구체적 내용이나 정도의 차이는 크지만 미국이 19세기 건국 초기에 셰익스피어를 미국의 건국이념에 부합하는 ‘미국적’ 작가로 전유한 방식과 닮은 점이 있다. 한영림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독립전쟁 직후부터 민주주의 정신을 표방하는 미국인으로 차용되어왔다. 입헌공화국을 선포한 미국은 영국의 왕실과 국회, 신분구조와 전통을 혐오하고 거부했지만 영국의 문화유산인 셰익스피어를 미국에 귀화한 영웅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최초의 국민작가로 평가되는 쿠퍼(James Fenimore Cooper)는 “셰익스피어는 미국의 작가”라며 칭송했고,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셰익스피어를 “미국인의 아버지” 반열에 올렸다(261-63).
- 10) 2012년에 나온 「자연주의문학과 그 반동성」에서 김태섭은 로렌스(D. H. Lawrence)를 영국의 대표적 ‘자연주의’ 작가로 분류하고, 그의 『아들과 연인들』(*Sons and Lovers*)과 『채털리 부인의 사랑』(*Lady Chatterley's Lover*)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줄거리리를 소개하면서 두 소설이 “육망의 충족을 위해 고민하는 추한 사람들을 그려냈으며”(83).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동물과 다름없이 그리면서,” 실제 생활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든 “기괴하고 비도덕적인 말세기적” 행동들을 일삼는 인물을 그려낸다고 비난한다(88).
- 11) 1997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에는 전금영의 「셰익스피어 희곡의 어휘문제론적 수법의 특성에 대하여」라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기법을 다룬 이 논문에서 전금영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자기 시대의 역사적 과업에 의하여 내용과 미학적 특성이 규정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예술적 현상이었으며 언어발전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단계였다”(45)고 평한 뒤, 셰익스피어의 특징적인 어휘 문제론적 기법으로 결말(pun), 대비법, 비유법, 과장법의 사용을 논한다.

인 용 문 헌

- 강석주. 「서구비극 담론의 보수성과 셰익스피어」. *Shakespeare Review* 42.3 (2006): 367-92. Print.
- 권오숙. 『셰익스피어: 연극으로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다』. 파주: 한길사, 2016. Print.
- 김미애. 「『햄릿』의 극적 발전과 자아문제」. 『영미연구』 23 (2010): 3-25. Print.
- 김경식. 「문예부흥기 인문주의 문학의 일반적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 53.3 (2012): 78-82. Print.
- 김영희. 「북한 영문학 서설」. 『안과밖』 11 (2001): 9-36. Print.
- 김용범. 「종자중시사상으로 부활한 북한 문예이론 종자론의 실체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44 (2008): 201-26. Print.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1992. Print.
- 김태섭. 「자연주의문학과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 58.3 (2012): 87-90. Print.
- 김해균 역. 『로미오와 줄리엣』.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Print.
- 도해자. 「북한에서 ‘근대’ 영문학을 보는 시각」. 『영미연구』 29 (2013): 45-70. Print.
- 로대현, 김왕섭. 『외국문학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 Print.
- 리기도.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Print.
- 림학수. 「셰익스피어와 휴머니즘」. 『조선문학』 11 (1954): 122-34. Print.
- _____. 「셰익스피어의 예술」. 『셰익스피어 희곡선』. 박시환 외 역.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6-16. Print.
- 문상민 외. 『서구라파 문학 개관』. 평양: 국립 문학예술서적 출판사. 1958. Print.
- 박승숙 외. 『외국문학사』(2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Print.
- 박우수. 「“삶이라는 내밀하게 정교한 이 매듭”: “절묘한 조합”의 『안토니와 클

- 레오파트라』. *Shakespeare Review* 52.1 (2016): 31-52. Print.
- 박정만. 「리어의 ‘숨은 뜻’과 제국의 ‘지도’ 그리기」. 『영미연구』 29 (2013): 71-101. Print.
- 백과사전출판사 편찬. 『광명백과사전 6: 문학예술』.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Print.
-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외국 문학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04.06. Web. 2016.08.01.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찬.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rint.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찬. 『문학예술사전』(상·중·하).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93. Print.
- 신룡근. 『영어: 중학교 5학년용』(4판). 평양: 외국문도서출판사, 2008. Print.
- 신룡근 외. 『영어: 고등중학교 5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Print.
- 안성호. 「1967년 ‘5.25 교시’를 통한 북한의 역사왜곡연구」. 『사회과학연구』 32.2 (2015): 37-73. Print.
- 예술교육 편집부. 「문예명절인 셰익스피어극명절의 유래」. 『예술교육』 15 (2004): 19. Print.
- 오수진. 「『리어왕』에 나타난 재현 방식의 파라고네와 상호작용」. 『고전·르네상스 영문학』 23.2 (2014): 265-85. Print.
- 전금영. 「셰익스피어 희곡의 어휘문제론적수법의 특성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어문학』 43.3 (1997): 45-48. Print.
- 정성무 외. 『문학대사전』(1-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2000. Print.
- 천리마 편집부. 「세계명언 영국작가 셰익스피어 윌리엄」. 『천리마』 404.1 (1993): 118. Print.
- 천리마 편집부. 「(세계유모아) 살아있는 쉘스피어」. 『천리마』. 629.10 (2011): 98. Print.

- 천리마 편집부. 「(체육일화) 아마추어휘거계로 돌아온 <셰익스피어>」. 『천리마』 595.12 (2008): 98-99. Print.
- 최경희, 홍유미. 「북한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 『안과밖』 11 (2001): 37-58. Print.
- 한영림. 「셰익스피어와 19세기 미국의 꿈: 미국 국가정체성 만들기」. *Shakespeare Review* 45.2 (2009): 255-75. Print.
- 황영길. 「『셰익스피어희곡선』(1)에 대하여」. 『셰익스피어희곡선』(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1. 2-14. Print.
- _____. 「『셰익스피어희곡선』(2)에 대하여」. 『셰익스피어희곡선』(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2-12. Print.
- 현종호 외. 『문학: 고등중학교 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Print.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7th ed. Boston: Heinle, 1999. Print.
- Aristotle. *Poetics*. *The Norto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 Ed. Vincent B. Leitch, et al. New York: Norton, 2001. 86-121. Print.
-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4th ed. Hampshire: Macmillan, 2007. Print.
- Eagleton, Terry. *Sweet Violence: The Idea of the Tragic*. Oxford: Blackwell, 2003. Print.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U of Chicago P, 1980. Print.
- Johnson, Samuel. "Preface to Shakespeare." *Dr Johnson: Prose and Poetry*. Ed. Mona Wilson. London: Rupert Hart-Davis, 1969. 487-529. Print.
- Leavis, F. R. "Diabolic Intellect and the Noble Hero: A Note on Othello." *Scrutiny* 6 (1937): 259-83. Print.
- Shakespeare, William. *The Norton Shakespeare: Based on the Oxford Edition*. Ed. Stephen Greenblatt, et al. New York: Norton, 1997. Print.
- Williams, Raymond. *Modern Tragedy*. London: Verso, 1979. Print.

Abstract

Perception of Shakespearean Tragedies in North Korea

Do Haej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Shakespearean tragedies have been perceived in North Korea, which is known to remain the most closed in the world. Shakespeare has always been held in the highest esteem in the North Korean books and articles on Western literature. Shakespeare's plays are found in English or Literature textbooks in North Korean secondary schools.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Juche* (self-reliance) ideology in the mid-1960s marked the change in the nation's leading literary and artistic theory, general estimation of Shakespeare has been rather unvarying. The seemingly contradictory and unreconcilable aspects between Shakespearean tragedy featuring feudal kings or aristocracy and North Korean ideology which claims that individual is the master of his destiny and that the North Korean masses are to act as the masters of the revolution and construction, haven't reduced the popularity of Shakespeare's tragedies in North Korea. Scholars in North Korea have been highly critical of traditional character criticism: Hamlet, Othello, Romeo, Juliet, and Friar Laurence are considered characters embodying Renaissance Humanism, being innocent, righteous, noble, and liberal. Interestingly, North Korean criticism almost rarely mentions these characters' flaws and almost unequivocally defends their tragic actions.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the symbolism of ghosts or witches, complex psychology of evil characters, and gender issue is little found in North Korean criticism.

Key Words: North Korea, *Juche* (Self-reliance) Ideology, Shakespeare, Tragedy,
Character Criticism

논문접수일: 2016. 09. 21

심사완료일: 2016. 10. 12

게재확정일: 2016. 10. 14

저자: 도해자

소속: 한국교통대학교

주소: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21길 14-7, 303호

이메일: mtjr5437@daum.net

